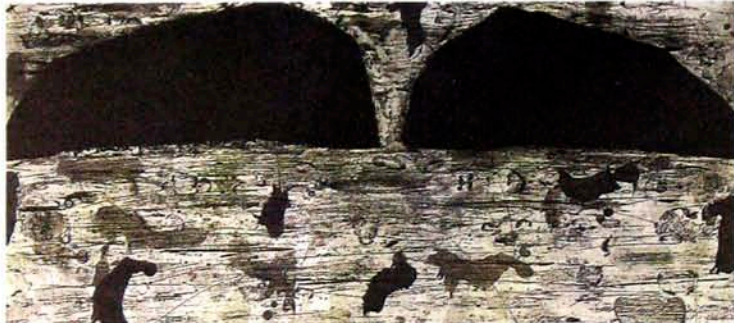




앤드류 오웬 'The Well', 영화포스터



전경호 '존재의 대립-자연(97-1)', 예칭 아크릴트 100×50cm

앤드류 오웬전

9. 3~13 담쟁거리리

캐나다 출생의 작가 앤드류 오웬(Andrew Owen)은 동양 문화에 대한 해석을 작업의 화두로 삼는다. 작가는 서울에서 머물면서 인사동, 낙원동 일대의 영화 포스터를 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독특한 조형문법을 만들어 낸다. 동양에 대한 서양 작가의 시각이 우리 문화 보기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을 제공한다.

전경호 동판화전

8. 27~9. 2 종로쟁거리리

전경호는 동판을 통해 존재의 생성과 형성, 존재의 소멸과 윤회 그리고 존재의 심상에 대해 물음을 던진다. 여백의 힘과 논리로 전시서문에서 표현된 그의 작품은 관화예술이 지닌 특성을 매개로한 일련의 작업을 선보인다.

부식동판을 매체로 표현기법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소화한 것이 이채롭다.

아지도 낯설은 세상-여승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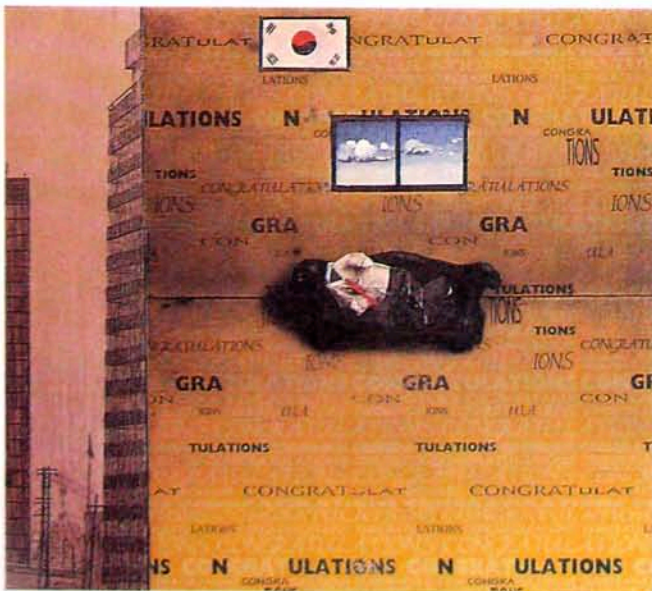
9. 3~9 이십일세기화랑

욕망의 피해자로서의 남성전에 이은 여승열의 두 번째 개인전. 캔버스에 혼합재료를 사용하여 이차원의 화면을 하나의 공간으로 설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전시 타이틀이 보여주듯이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익숙하게 경험하는 세상에 대한 낯설음을 시각화하였다.

정현 조각전

9. 23~10. 6 원화랑

인간의 형상을 소재로 작업을 해 온 정현의 조각전이다. 토르소나 반신상 그리고 흉상이 주를 이루며, 단순한 형태의 인체들과 단편적 신체들로 표현된다. 그의 작업은 해부학적 골격이나 근육의 구조와는 거리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형상들을 통해 현대인의 자화상을 담고 있다.



여승열 '공간', 캔버스에 혼합재료 53×59cm



정현 '무제', 청동 42×42×60cm